

김유정 소설의 일제 기생문화 이해 텍스트로서의 활용 가능성 모색*

최 희 영**

| 목 차 |

- | | |
|---------------------------|------------------------|
| I. 서 론 | III. 김유정 소설의 기생문화 이해하기 |
| II. 김유정 소설에 투영된 기생
이미지 | 텍스트로서의 활용
IV. 결 론 |

국문초록

이 글은 김유정(金裕貞, 1908~1937) 소설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일제 기생문화 이해하기 텍스트로서의 활용 가치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김유정 소설이 발간된 1930년대에 기생은 극장 무대와 박람회에 배치되어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지고, 경제적 부를 축적했으며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파업을 자행하였다. 필자는 김유정 소설에 이러한 기생의 다채로운 활동사를 반영한 부분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그의 식민지 도시 배경 소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김유정 소설에 묘사된 기생을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기생, 경제력을 갖춘 여성으로서의 기생, 전통문화를 지키는 예능인으로서의 기생, 남녀 간 감정 교류 대상으로서의 기생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다양한 면모의 기생의 삶을 표상하고 있는 김유정 소설은 그의 기생 관련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김유정 소설이 일제 기생문화 이해 텍스트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김유정, 일제강점기, 소설, 기생, 교육 텍스트

* 본 논문은 2022년 9월 24일 제14회 김유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노턴일리노이대학, 역사학과 객원연구원, hychoi1115@gmail.com

I. 서 론

본 논문은 김유정(金裕貞, 1908~1937) 소설에 나타난 일제 기생 이미지를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일제 기생문화 이해하기 텍스트로서의 활용 가치와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이다. 최근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역사교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학 작품은 학생들이 과거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고 상상하도록 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이끈다. 또한 역사적 인물 혹은 사건에 심도 있게 감정 이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역사적 사고력 함양에 유용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인정받고 있다.¹⁾ 한편 기생의 다양한 활동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김유정 소설이 발간된 1930년대에 기생은 극장 무대와 박람회 배치되면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지고,²⁾ 그로 인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³⁾ 좀 더 이전 시기인 1920년대 후반에는 잡지 『장한』을 발간하기도 했다.⁴⁾ 김유정은 이러한 다채로운 활동사를 펼쳤던 기생 박녹주(朴綠珠, 1905~1979)를 짝사랑했던 이로 유명하다. 따라서 박녹주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 자서전

-
- 1) 주경철, 『문학으로 역사 읽기, 역사로 문학 읽기』, 사계절, 2009; 연동원, 「독서를 활용한 역사교육 연구-신운복에 관한 소설의 역사서술 특성을 중심으로-」, 『한민족 문화연구』 34, 한민족문화학회, 2010; 노진서, 「소설과 영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사례 연구」, 『역사와 실학』 66, 역사실학회, 2018; 강혜원, 「현대소설을 통한 문학-역사 교과의 융복합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2) 권도희, 「19세기 여성음악계의 구도」, 『동양음악연구』 24,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2.
 - 3) 강소영, 「기생의 은유화 방식을 통해 본 기생의 현실과 그들의 욕망」,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신현규, 『꽃을 잡고』, 경덕출판사, 2005; 신현규, 『기생 이야기』, 살림, 2007; 신현규,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어문학사, 2010; 최희영, 「1934년 三南 水災民을 위한 기생들의 구제 활동」, 『대동문화연구』 119, 대동문화연구원, 2022.
 - 4)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연구 II: 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여성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화학회, 2005;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III: 기생 잡지 <장한>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격 소설을 중심으로 김유정 문학의 일제 기생문화 이해 텍스트로서의 잠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교육계에서 활동 중인 교사와 연구진들에 의해 집필된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⁵⁾에 따르면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 중에 하나로 ‘젠더의 시각에서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여성사를 기존의 역사 교육과정에 추가하는 정도를 넘어서 젠더의 시각에서 역사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성 관련 문제를 재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근·현대사에서 여성의 활동과 사회적 위상, 그중에서도 일제강점기 기생에 관한 연구는 상기한 바와 같이 최근 역사학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현장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돈을 받고 성적 상대가 돼 주던 ‘창기’와 한국 전통예술 보존과 확산에 이바지한 관기는 엄연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기생이 ‘매춘 여성’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기생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구한말 기생제도의 변화와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적 시각에 근간을 두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경우는 드물다.⁶⁾ 이에 본고에서는 김유정 문학의 가치를 일제강점기 여성사 이해 확장과 함께 역사 교육학계의 새로운 흐름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유정은 강원도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이미지를 소설화한 작가이다.⁷⁾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모순, 근대적 가치의 이면을 예리하게 포착한 작가’로도 평가받고 있다.⁸⁾ 4년이라는 짧은 문단

5) 양호환 편,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책과함께, 2011.

6) 이에 관하여는 서지영, 「표상, 젠더, 식민주의: 제국 남성이 본 조선 기생」, 『아시아 여성연구』 48(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9 참조.

7) 김미영은 이러한 김유정 소설의 특징을 채색 한국화의 분위기와 색감을 닮은 것으로 정리하며 1930년대 중반 조선만의 향토성을 보여주는 문화 생산을 같구했던 조선화가그룹, 「목일회」와의 교류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이에 관하여는 김미영, 「병상(病床)의 문학, 김유정 소설에 형상화된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문논총』 71(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참조.

8) 김윤정, 「김유정 소설의 정동 연구-연애, 결혼 모티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102쪽.

활동 기간 동안 33여 편의 단편소설을 비롯하여 미완성된 장편, 번역소설, 그리고 몇 편의 수필을 집필하였다.⁹⁾ 식민지 근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빈곤에 놓인 하층민 등장인물의 해학적 언어표현과 함께 반어적으로 그려 낸 김유정 문학은 다양한 분야와 학계의 관심 속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다.¹⁰⁾

그중에서도 김유정 소설 속 기생을 언급한 연구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활발히 나오고 있다. 특히 이영숙, 오미화, 유인순, 송주현, 권은 등의 연구가 눈에 띈다. 이영숙과 오미화는 김유정 소설 속 여성 인물 분석 연구¹¹⁾에서, 유인순은 술과 관련된 직업군을 다룬 연구¹²⁾와 김유정 소설 속 아리랑을 분석한 연구¹³⁾에서, 송주현은 ‘사랑’의 의미를 해석하는 연구 중 <생의 반려>에 ‘몸 파는 여성들’ 분석¹⁴⁾에서, 권은은 식민지 도시 경성 내 기생촌이 존재했던 종로를 다룬 연구¹⁵⁾에서 기생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소설 속 하층민 혹은 여성 집단을 다루는 연구에서 부분적으로만 기생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김유정 소

9) 박상준, 「일반논문: 반전과 통찰-김유정 도시 배경 소설의 비의」,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7쪽.

10) 김유정 문학의 상반된 이중성은 ‘양가적 속성’ 혹은 ‘양가성’으로 불린다. 이에 관한 답론은 홍숙희, 「김유정 소설의 양가성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홍혜원, 「폭력의 구조와 소설적 진실 - 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표정옥, 「근대적 미의식의 양가적 충돌과 타자적 여성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 연구-너새니얼 호손의 <반점(The Birthmark)>과 김유정의 <안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등 참조.

11) 이영숙, 앞의 논문, 14-15면; 오미화, 「김유정 소설연구: 여성인물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0~46쪽.

12) 유인순, 「김유정 문학의 부싯깃-술·여자·노래를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22,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3, 6쪽.

13) 유인순, 「김유정과 아리랑」, 『비교한국학』 20(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208~210쪽.

14) 송주현,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251~252쪽.

15) 권은, 「식민지 도시 경성과 김유정의 언어감각」, 『인문과학연구』 38,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83~84쪽.

설¹⁶⁾ 속 기생의 삶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교육 환경에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김유정의 식민지 도시 배경 소설을 중심으로 기생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유형화한다. 둘째,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여성 인물군과의 비교를 통해 김유정의 기생 조직을 향한 구별된 혹은 공통된 서술을 고찰한 후, 동시대 남성 지식인층 작가들이 서술한 기생과 비교하여 김유정 소설 속 기생 서술의 특이성을 재확인한다. 김유정 문학 속 기생이 단순히 화류계 여성이 아닌 경제적 독립, 전문성, 인격체 등을 갖춘 여성군으로 등장하며 이는 김유정의 기생과 관련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결과로 일제강점기 다층적인 기생의 삶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논지를 펼칠 예정이다.

II. 김유정 소설에 투영된 기생 이미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김유정 하면 떠오르는 여성 인물이 있으니 바로 기생 박녹주이다. 김유정은 그가 휘문고를 졸업 하던 해 목욕탕에서 나오는 박녹주를 보고 한눈에 반하여 연모하게 되었다. 그 후 박녹주에게 밤새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랑의 혈서를 써서 전하는가 하면 그녀의 오라비를 통해 편지와 선물을 보내기도 하지만 번번이 되돌아왔다.¹⁷⁾ 김유정의 사랑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집착으로 변해갔고 끝내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가 1930년 춘천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 중 하나도 박녹주에 대한 사랑이 이뤄지지 않은 후 괴로움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두꺼비>의 강옥화와 <생의 반력>의 나명주가 박녹주를 향한 김유정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담아낸 인물이라고 보는 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¹⁸⁾

16) 김유정, 전신재 엮음, 『원본 김유정 전집(개정판)』, 강, 2012의 원문을 활용하였다.

17) 이영숙, 「김유정 소설 연구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4쪽.

김유정의 기생 박녹주와의 관계가 형성되던 시기에 전통 공연예술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식민지 시기 기생은 경찰청에 신고하여 허가증을 받고 경찰청 지시에 따라 기생조합 혹은 권번(이하 권번으로 통칭)¹⁹⁾을 설립해야 하는 등 그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권번이 일제 통치 수단의 하나로 받아들인 자본주의를 공연과 교육에 적용하여 1920년대 극장에서 전통 음악공연이 황금기를 맞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1930년대에 이르러 기생들의 공연 양상과 레퍼토리는 공연계 주식회사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권번을 중심으로 다양화되었다. 권번에서도 소리를 가르치게 되면서 일부는 ‘여류 명창’으로 큰 인기를 끄는가 하면 또 다른 일부는 ‘기생 가수’로 대중가요 시장을 점령하기도 한다.²⁰⁾ 물론 여전히 기생에 대한 편견은 존재했다. 기생과 얽힌 스캔들 관련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고, 기생과의 인터뷰가 자주 기사에 게재되었다. 기생을 향한 대중의 호기심과 경멸의 시선이 공존한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여류 명창의 대표적 인물인 박녹주를 중심으로 김유정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기생의 모습이 김유정 소설에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는지 그 양상을 유형화한다.

1.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기생

김유정 소설에서 가장 많이 상상할 수 있는 기생의 모습은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여성의 모습이다. 화류계는 유곽 또는 요릿집·기생집 등이 몰려 있는 지역 및 그곳에서 생활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18) 김중호, 「김유정의 고백소설 연구」, 『인문학연구』 1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노지승, 「맹목과 위장,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자기(self)의 텍스트화 양상 - 〈두꺼비〉와 〈생의 반력〉을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 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19) 일제강점기 기생들의 활동을 중간에서 개입하고 조정하여 수수료를 받았던 일종의 상업 조직으로 1910년대 중반부터 일본식 표기법인 권번으로 불리었다.

20) 신현규, 앞의 책, 2010 참조.

경성을 배경으로 한 김유정 소설 중 요릿집이나 기생집에 살면서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상으로 기생이 등장한 예는 단연 자서전 격 소설인 〈두꺼비〉, 〈생의 반력〉이 대표적이다. 두 소설에 기생은 경제적 이득에 집착하는 세속적 인물로 표현된다.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울퉁한 낮쪽에 그 두꺼비눈을 한 서너 번 깜빡거리다 나에게 훈계가, 너는 학생이라서 아직 화류계를 모른다, 멀리 앉아서 편지만 자꾸 띄우면 그게 뭐냐고 툭툭히 나무라더니 기생은 여학생과 달라서 그저 맞붙잡고 주물러야 정을 쏟는데, 하고 사정이 딱한 듯이 입맛을 다신다. 첫사랑이 무언지 무던히 후려맞은 몸이라 나는 귀가 번쩍 띄어 그럼 어떻게 좋은 도리가 없을까요, 하고 다가서서 물어보니까 잠시 입을 다물고 주저하더니 그럼 내 직접 인사를 시켜 줄 테니 우선 누님 마음에 드는 걸로 한 이삼십원어치 선물을 하슈, 화류계 사랑이란 돈이 좀 듭니다, 하고 전일 기생을 사랑하던 저의 체험담을 짝 이야기한다.-(〈두꺼비〉 중에서²¹⁾

남자 주인공이 흠모하는 기생 연화의 오라버니가 주인공을 이용하며 연화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채근하는 장면이다. 이때 기생집에서 일하는 연화는 표현 그대로 화류계 여성으로 요약되며 돈을 받아야만 사랑을 주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나아가 화류계에 종사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여성을 넘어서서 온갖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인물군으로 묘사된다. 〈두꺼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여성 채선은 기생으로 키울 셈으로 입양한 연화의 수양딸인데 연화 남편과 불미스러운 관계로 발전하는 내용이 전개되어 기생 연화의 삶이 온갖 구설수에 얹히는 이들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옥화가 바람을 피운 남편과 채선에게 폭력을 가하는 모습을 서술하며 “그 담 일년이 썩 지난 뒤에야 알은 거지만 어느 날 신문에 옥화의 자살미수의 보도가 났고 그 까닭은 실연이라해서 보기 송글송글한 기사였다.”²²⁾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약을 먹고 소란을 피운 예비 기생 채

21) 김유정, 전신재 엮음, 앞의 책, 202~203쪽.

선과 그러한 채선을 폭력으로 대하는 기생 연화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버지 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자살하기 위해 독약을 먹은 채선에 대해서 “먹긴 좀 먹은듯하나 그러나 온체 알각쟁이가 돼서 죽지 않을만큼 먹었을테니까 염녀없어요.”²³⁾라고 말하는 또 다른 기생의 대사는 기생을 중심으로 한 치정극이 얼마나 일상이 되어버렸는지 예상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생의 반력〉에서 주인공이 동생을 시켜 기생인 척하고 답장을 쓰게 하는 내용에서도 기생은 “화류계에 떨어 진천한 몸”²⁴⁾으로 표현되어 있다. 화자인 ‘나’가 기생에게 끝끝내 집착하는 친구 명렬을 설득하기 위해 기생을 돈 많은 남자만 상대하는 여성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생의 반력〉에서도 기생은 온갖 풍파에 휘말리는 여성군으로 그려진다. 가령 명렬의 형은 집안으로 기생들을 들여 가족 앞에 드러내어 놓고 음탕한 장난을 치며 심지어 한 집으로 첩을 두셋씩 끌어들이어 풍파도 일으킨다. 이렇듯 기생은 가정 파탄의 온상이 되는 여성 이미지로 묘사되어 있다.

직접 기생이 나오지는 않으나 등장인물의 대화 속에 기생이 등장하여 치정극 주인공으로서의 기생 이미지를 서술한 예도 있다. 가령 〈정조〉중에서 부인이 남편에게 “서방님! 제가 뭐 기생첩인가요, 색시첩인가요, 더 바라게?”라고 “앙큼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장면에서 물질을 바라며 첩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기생의 정형화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²⁵⁾ 이후 본처인 부인 말고도 수하동에 기생과 따로 살림을 차려 보살펴왔다는 내용에서도 첩 이미지와 관계지어지는 기생을 그리고 있다.²⁶⁾ 그런가 하면 한 아기와 그 아기로 인해 벌어진 혼인과 관련된 얽힌 인연을 다룬 〈애기〉중에서 첫날밤 남편 필수와 부인의 다툼에 기생이 등장한다. 주인공 필수가 이미 다른 남성과의 관계로 임신한 여성을 아내로 삼아 데릴사위로 들어온

22) 위의 책, 208쪽.

23) 위의 책, 207쪽.

24) 위의 책, 271쪽.

25) 위의 책, 286쪽.

26) 위의 책, 287쪽.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부인을 나무라며 “애, 이진 바로 수작이 기생 외판치는구나!”라고 말한다.²⁷⁾ 부인의 부정적 이미지를 기생과 연결한 대목이다.

실제로 유정의 자전소설이 발간되었던 1930년대 기생에 관한 신문 기사는 대부분 연애 혹은 연애에 기인한 자살과 도주, 치정극, 폭행, 사기 사건 등을 묘사하고 있다. 1925년과 1938년 사이의 『매일신보』와 『동아일보』에는 기생의 자살 관련 기사만 236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²⁸⁾ 남성들에게 있어 기생은 가벼운 ‘연애’의 대상이지 심각한 ‘결혼’의 대상은 아니었다. 결국 자신의 지위를 비판한 기생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²⁹⁾ 여성 직업인을 소개하는 1928년 기사문에도 기생은 “노래와 춤을 팔려고 하다가 몸을 희생”하고, “능라를 감고 금, 은으로 장식해도 마음은 거친 사막”과 같으며, “돈 벌자는 것이 유일의 표어”인 무리로서 숭독되는 등 부정적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었다.³⁰⁾ 김유정의 소설은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 기생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으로서의 기생

〈두꺼비〉와 〈생의 반려〉에 등장하는 강옥화와 나명주는 모두 여류 명창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소리 기생이다. 이들은 경제적인 밑받침을 해주는 후원자로 기동서방을 두고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 직업군이었다.³¹⁾ 소리 기생은 일정 기간 예술 교육을 받아야 했다. 권번에 등록되어 대기하고 있다가 호출을 받아 노름 즉 행사에 나가곤 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부

27) 위의 책, 395쪽.

28) 김은정, 「일제강점기 여성 이미지의 시각화-기생과 여금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39, 세계문학비교학회, 2012, 13쪽.

29) 위의 논문, 위의 쪽.

30) 「돈벌이 하는 女子職業探訪記(十七)」, 『동아일보』, 1928.3.12(위의 논문, 12면 재인용).

31) 유인순, 앞의 논문, 2003, 6쪽.

기생이 다른 여성들과 달리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실을 추측하게 하는 대목이 김유정 소설에 등장한다는 부분이다.

우선 기생집이 만연해 있음을 알리는 부분이 〈생의 반려〉에 등장한다. 법과까지 마치고 전당포를 경영하고 있었던 박인석을 고등학교 때부터도 기생집에 출입이 잦았던 청년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 고등학생 학생들도 기생집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기생 문화가 만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기생집을 잘 다니냐는 질문에 박인석이 “어쩌다 친구와 어울리면 갈 적도 있지.”라고 답하는 부분에서 요리집에 가볍게 드나드는 지식인층 남성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³²⁾ 이렇듯 지식인층 남성들의 집결지였던 기생집은 바로 기생들이 경제적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었다.

기생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여성임을 암시하는 부분은 〈애기〉에도 나타난다. 며느리가 가진 딸이 남 핏줄을 지닌 애기인 것을 알고 버릴까 하다가 건네는 두 노인의 대답 속에서 애기가 이후 기생이 되어 나중에 덕 좀 보게 해줄지 모른다는 표현을 한다. 또한, 어려운 형편에 버거워서 애기를 부잣집에 입양 보내려는 속셈으로 골목을 돌아보던 주인공이 다옥정 골목에 있는 기생촌을 기웃거리다가 이곳에서 애기가 ‘상팔자’로 자라났으면 하는 소망을 품는 장면이 있다.³³⁾

기생이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적 자립을 갖춘 이들을 암시하는 장면도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두꺼비〉 중에서 자살 소동에 피 흘리는 채선을 옥화가 병원으로 데려가는 장면에서 어멈을 시키어 인력거를 부른다는 서술이 있다. 인력거는 요릿집에 불러가는 기생의 전용물로 기생하면 떠오르는 교통수단이었다. 대부분은 인력거를 타면 휘장을 내리나 기생은 휘장을 치지 않고 인력거를 타며 자신들의 존재를 과시하고자 했다. 인력거꾼들이 기생들을 요릿집으로 나르면서 기생 수입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의 딸이 기생이 되길 바라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한다.³⁴⁾ 부의 축적 가능성을 지닌

32) 김유정, 전신재 엮음, 앞의 책, 269쪽.

33) 위의 책, 406쪽.

34) 신현규, 앞의 책, 2010, 63~64쪽.

직업여성으로서의 기생과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김유정 소설 속 기생 묘사는 당시 일부 기생의 삶을 이해하게 해준다.

3. 예능인으로서의 기생

앞서 서술하였듯이 <두꺼비>의 강옥화, <생의 반려>의 나명주 모두 소리 기생, 즉 기예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예능인으로 그녀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기동서방, 권번, 관객으로부터 자신들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인력거를 타고 놀음, 즉 요즘 말로 행사를 뛰러 가는 기생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주는 장면이 <생의 반려>에 자주 등장한다. 주인공 친구가 기생 명주를 찾아가서 “나명주 선생”을 찾자 “놀음 나가셨어요.”라고 매몰차게 말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등장하는 부분에서 그러하다.³⁵⁾ 놀음의 장소는 보통 요릿집이나 규모가 큰 시내 음식점으로 지역 유지들의 환갑잔치 또는 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뒤풀이 등에 나가서 놀음을 연행하여 화대를 받는 형식이었다. 요즘 시대로 치면 연예인이 공연을 마친 후 행사 주최 측이 소속사에 대금을 지불하면 소속사가 연예인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일정 부분을 떼어주는 식이다.

김유정이 기생을 공연 무대에 서기 위해 오랫동안 소리를 익히는 예술 집단으로 인식했음을 암시하는 장면이 <애기>에도 등장한다. 위에서 언급한 “혹 기생을 만들려면 나중에 덕 좀 볼는지 모르지요마는”이라는 노인들의 대화에 이어지는 문장은 “언제 그만큼 자라고 소리도 배우고 합니까.”이다.³⁶⁾ 경제적 축적을 가능케 해주는 놀음 즉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생이 오랜 시간에 걸쳐 소리를 배워야 함을 시사해 주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인순은 아리랑³⁷⁾을 포함하여 시조, 민요 등의 가사가 인용된 김유정의

35) 김유정, 전신재 엮음, 앞의 책, 254쪽.

36) 위의 책, 404쪽.

문학은 김유정의 우리 소리를 향한 관심을 시사하며 이는 그의 첫사랑, 기생 박녹주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³⁸⁾ 김유정 문학에 등장하는 음악적 표현의 배경적 정보 유추를 통해 박녹주와 같은 기생 일부가 소위 여류 명창이라 불리는 주요 예술 집단으로서 전통 소리를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인식하게 유도할 수 있다.

4. 감정 교류 대상으로서의 기생

송주현의 연구에 따르면 김유정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고단한 삶에 내동댕이쳐진 이들로 이들에게 있어 사랑은 자신들의 존재 의미를 일깨워 주는 이른바 존재론적 변환의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하층민 직업군 여성을 향한 남성들, 혹은 작가의 시선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중 기생을 감정을 교류하는 인격체로 대하는 면모가 엿보인다.³⁹⁾ 〈두꺼비〉와 〈생의 반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기생 옥화, 명주를 대하는 자세는 조심스러운 동시에 강렬하다. 자연스레 박녹주를 향한 김유정의 감정과 그녀에게 구애한 경험을 상상하게 한다.⁴⁰⁾

먼저 〈두꺼비〉에서 옥화를 사모하는 주인공의 심경을 토로하는 하단의 인용 부분은 옥화를 단순히 유희의 상대가 아닌 학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마음을 빼앗긴 상대로 묘사하고 있다.

37) 아리랑은 향토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때로는 일제 만행을 고발하기 위한 장치 뿐만 아니라 사실에 함축된 능청스러움과 해학을 체득하여 김유정 문학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립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에 관하여는 이미림, 「김유정 문학의 로컬리티 연구」,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2019, 328면 참조.

38) 유인순, 앞의 논문, 2012, 208쪽.

39) 송주현, 앞의 논문, 251~252쪽.

40) 박녹주의 회상에 따르면 김유정이 그녀에게 구애한 기간은 1926년에서 1930년으로 김유정이 기생에 관한 경험을 하고 관련된 소설을 실제로 집필한 것은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초반으로 여림집작할 수 있다. 박녹주, 「나의 이력서」, 『한국일보』 1974.1.25.~31. 참조.

시험은 급하고 과정낙제나 면할까 해야 눈을 까뒤집고 책을 뒤지자니 그렇게 푹푹하든 글자가 어느듯 먹줄로 변하니 글렀고, 게다가 아련히 나타나는 옥화의 얼굴을 보면볼수록 속만 탈 뿐이다. 몇 번 고개를 흔들여 정신을 바루 잡아 가지고 드러다보나 아무 효과가 없음에는 이진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고 한구석으로 책을 내던진뒤 일어서서 들창을 열어 놓고 개운한 공기를 마셔 본다.[...]하여튼 양단간에 한시간후라고 시간까지 지정하고 갓을 때에는 되도록 나에게 좋은 기회를 줄라는데 틀림이 없고 이렇게 내가 옥화를 얻는다면 학교쯤은 내일 집어쳐도 좋다 생각하고, 외투와 더부러 허룽허룽 거리로 나른다.-〈두꺼비〉 중에서⁴¹⁾

옥화를 향한 감정으로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영락없이 한 여성을 사모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다. 실연의 상황에서도 화자의 순정은 변치 않는다. 오히려 타자 여성의 가치를 아름다움이나 젊음에 한정시키지 않고 만물을 아우르는 가치로 확대한다. 실연의 슬픔과 좌절을 긍정적 사유로 대치시키는 화자의 내면은 작가의 세계관을 엿보게 한다. 이루어지지 않은 옥화와의 사랑을 “광화문통 거리 한복판을 내려오며 늠여라, 늠여라, 고 만물이 늠기만 마음껏 기다린다.”라고 표현한 화자 ‘나’의 마지막 구절은 자신의 순정을 상상의 영역으로까지 극대화하며 희극적 순정으로 해결하려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⁴²⁾

〈생의 반려〉에서도 화자 ‘나’가 바라본 기생 명주를 향한 주인공 명렬의 마음은 지고지순하다. 주인공은 명렬을 지켜보며 명주가 명렬보다 다섯 살 연상으로 기생으로서는 늙은 나이이며 외모가 뛰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명렬이 그토록 가슴 아파하는 상황을 해석해 보려 한다. 화자는 “사람은 아마 극히 슬펐을 때 가장 참된 사랑을 느끼는 것 같다.”라는 통찰과 함께 “요즘에 와서 명렬 군은 생의 절망, 따라서 우울의 절정을 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⁴³⁾ 이어서 기생의 순수한 사랑을 믿고 있는 명렬이 “지

41) 김유정, 전신재 엮음, 앞의 책, 204쪽.

42) 위의 책, 211면; 이정, 「유혹과 오염의 서사-김유정의 「정조」론-」, 『현대소설연구』 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21~122쪽.

극히 존경하는 한 여성”으로 명주를 연모하고 있다는 표현이 등장한다.⁴⁴⁾ 더불어 길에서 만난 또 다른 지식층 청년 박인석을 향해서 주인공이 기생을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에서도 기생을 감정을 공유하는 인격체로 다룬 유정의 시선을 읽을 수 있다.⁴⁵⁾ 명렬이 단순한 연애의 감정이 아니라 “어머니로서, 동무로서, 연인”으로서 명주를 여겼다는 문구는 작가 김유정이 실제로 경험한 기생 박녹주와의 인물사를 상기시키는 텍스트이다.⁴⁶⁾

박녹주는 실제로 1973년 문예지에 남긴 글을 통해 김유정과 의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⁴⁷⁾ 이에 따르면 편지 끝에는 꼭 “녹주, 내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구를 혈서를 썼고 녹주가 이 혈서를 볼 때면 진저리를 치며 아궁이에 쑤셔 넣곤 하였다. 편지는 매일 날아왔고 마지막 줄은 늘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혈서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박녹주를 향한 감정을 소설 속 인물을 통해 표출한 김유정 소설은 김유정 개인 혹은 김유정과 같은 당시 지식인 청년들의 기생과의 감정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본 김유정 소설 속 기생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며 이는 박녹주와의 관계 및 감정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물론 박녹주를 ‘기생’ 일반으로 등치시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식인 김유정을 냉대할 수 있었던 ‘성공한’ 여류 명창으로서의 기생 박녹주의 존재를 반영한 김유정 소설은 일제강점기 격변하는 문화·경제적 흐름에 따라 여류 명창, 기생 가수, 창기로 혼용된 삼패 기생 등으로 다층화되는 활동 양상을 이해하는 데에 효과적인 텍스트로 여겨진다.

43) 김유정, 전신재 엮음, 앞의 책, 253쪽.

44) 위의 책, 256쪽.

45) 위의 책, 269쪽.

46) 위의 책, 263쪽.

47) 박녹주, 「나 너를 사랑한다」, 『문학사상』, 1973.4.

Ⅲ. 김유정 소설의 기생문화 이해하기 텍스트로의 활용

본 장에서는 김유정 소설의 기생문화 이해하기 텍스트로의 활용 방법을 김유정 소설 속 다른 여성 집단과 비교 및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소설 속 기생과 비교하기로 나누어 제시한다.

1. 김유정 소설 속 다른 여성 집단과 비교

김유정 문학 속 여성을 분석한 연구⁴⁸⁾는 대부분 결혼이라는 전통적 체제 내 여성을 다룬 경우가 많다. 가족 구성원으로 기존 틀을 유지하며 현 상태라도 지속시키려 노력하는 여성 인물들을 묘사하는 데에 있어 김유정 소설은 남성 인물보다 여성 인물들을 통해 상대적으로 강한 생명력과 생활력을 드러내고 있다.⁴⁹⁾ 또한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 요인이 가난과 함께 무능력한 남편 등으로 형상화된 남성에게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홀로 분투하는 존재”로 그려진 김유정 소설 속 여성 인물은 식민지 백성이 감당해야 할 역사적이고 운명적인 상황 조건을 떠올리게 한다.⁵⁰⁾

김유정 소설 속 여성 인물들에게 놓인 현실은 식민지 시대의 모순된 경제 체제와 돈을 얻기 위해 여성들을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생계의 수단으로 이용하게 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 체제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들 모두 아내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가부장적 의식에 싸여 있

48) 김유정 소설 속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박혜경, 「김유정소설 속 여성인물이 구현한 성의 양상」, 『아시아문화연구』 32,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이영숙, 앞의 논문; 최성윤, 「김유정 소설의 여성 인물과 정조」,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11; 한상무,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강원도 여성상」, 『강원문화연구』 24,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5 등 참조.

49) 최성윤, 앞의 논문, 277~278쪽.

50) 위의 논문, 278쪽.

으며 아내를 살림이 어려울 때 내다 팔아 돈과 바꿀 수 있고 그들의 외모와 성을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다.⁵¹⁾ 심지어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다. 김유정 소설 속 여성들은 시대적 희생양으로 사회의식이 나 윤리의식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려지고 있다.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순종적인 아내들로서 오직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매춘에 나선다. 강한 생활력을 지닌 본능적이고 단순한 인물들이다.⁵²⁾ 이렇듯 시대와 사회 구조의 희생자⁵³⁾로 그려진 김유정 소설 속 여성은 단순히 남성 간 거래 대상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과 마주하여 협상과 거래를 실현하는 주체인 동시에 “여성 거래를 균열하고 주인 권력을 희화화하는 가능성을 가진 주체”로 그려지고 있다.⁵⁴⁾

김유정이 한창 활동했던 1920~1930년대는 문화사적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격동의 시대였다. 일본 식민지 치하의 어두운 현실에서 농촌의 농민들은 땅을 빼앗겨 삶의 터전을 잃고 유리결식하는 신세였다. 도시 노동자들 역시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일제 치하의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희생되어야 했던 여성들은 스스로 매춘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들병이가 되기도 한다. 남편은 부인의 매춘을 묵인하고 심지어 조장하기도 한다. 농촌 주막에서 술이나 몸을 파는 유부녀를 일컫는 들병이는 〈안해〉, 〈산골 나그네〉, 〈술〉에 등장하며 생존의 절박함으로부터 기인한 시골 사람들의 윤리의식 해체를 해학적으로 드러낸다.

인물의 대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 공장 노동자 또한 가난의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야만 하는 여성 직업군 중 하나이다. 〈생의 반례〉에서 주인공 화자 ‘나’가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누나의 삶을 떠올리는 장면이 그 예이다. 주인공은 돈놀이를 일삼는 누나를 떠올리며 그녀가 공장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좁쌀을 팔고 손수 물도 길

51) 이영숙, 앞의 논문, 57쪽.

52) 위의 논문, 35쪽.

53) 최성윤, 앞의 논문, 278쪽.

54) 이경, 앞의 논문, 319~348면 참조.

어 먹으며 때로는 바느질품까지 해가며 살아간다고 서술한다. 가뜩이나 병으로 몸이 날로 수척해진 누나는 억척스러운 여자로 표현되고 있다.

기생은 적극성과 강한 생활력을 지닌 점에서 김유정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른 하층민 여성들과의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에 공장 노동자 혹은 들병이와는 달리 전통적 가족 체제를 벗어나 도심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펼친 여성 직업군으로 근대적 시각의 장에 선봉에 있는 집단인 동시에 한국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인물이자 남녀 간 감정 교류 대상으로 표상되어있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김유정 소설은 기생을 다른 여성군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섬세하게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2. 동시대 다른 작가들의 소설 속 기생과 비교

김유정이 활동한 동시대 다른 남성 지식인층 작품⁵⁵⁾ 속 기생은 상당 부분 일부일처제, 남녀평등, 영속적 애정과 같은 근대적 삶의 대척점에 놓여 있는 여성으로 묘사되어오고 있었다. 특히 기생이 겪는 비극적 삶 혹은 인간적 자질 결여로 표상된 기생의 삶은 1920, 30년대 소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⁵⁶⁾

이러한 기생의 특징은 한국 근대 소설의 효시로 제시되는 이광수의 <무정>(1917)에서부터 나타난다. <무정>은 신청년 이형식, 여학생 김선형, 기생 박영채가 등장하여 애정 관계를 형성해 간다. 영채가 기생이 된 것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결과였으나 영채 아버지는 딸이 기생이 되었다는 소식에 절망하여 자살을 택한다. 당시 지역 권력이었던 김현수가 기생이 된 영채를 강간하고, 주변인들이 이러한 행위를 분노하지 않고 용인한 점,

55) 정혜영, 「2007년 근대의 성립과 기생의 몰락: 근대문화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참조; 그 외에 이인직 외, 『1900~1930 한국 명작소설 1』, 애플북스, 2017; 이태준 외, 『1931~1940 한국 명작소설 2』, 애플북스, 2017에 수록된 소설을 분석함.

56) 정혜영, 앞의 논문, 246쪽.

이형식이 주저하면서도 못내 영채를 매몰차게 버린 점 등은 모두 기생을 향한 사회적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영채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 등장하는 기생들은 대부분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적 삶의 주인공으로 묘사된다. 가령 〈무정〉 속 영채의 삶을 여정을 통해 드러나는 기생의 비극은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뜰때〉(1921), 나도향의 〈환희〉(1922) 등에도 나타난다. 한 소시민 주인공 남자가 기생을 열렬히 사랑하여 그녀에게 헌신하나 결국 성병을 얻어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 ‘타락자’가 된다는 줄거리를 지닌 현진건의 〈타락자〉(1922) 또한 기생을 향한 사랑이 결국 파멸로 연결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된다.⁵⁷⁾

1930년대 소설에서 기생은 인간적 면모를 상실함은 물론이거니와 상대 남성을 향한 사랑으로 죽음을 택하기까지 했던 비극적 로맨티스트 이미지를 보기 힘들다. 오히려 기생 및 기생과 연결된 이들이 돈과 탐욕을 바탕으로 남녀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이는 전통예술 연행자 임무를 상실한 채 몸을 파는 창기와 다를 바 없게 되어버린 기생의 몰락을 시사한다. 박태원의 〈우맹〉(1938)에 등장하는 기생은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남성을 탐하며 〈거리〉(1936)에 묘사된 기생 자매는 누구든지 쉽게 부르는 속요만 부르고 외설적 대화를 즐긴다. 모두 창기와 비슷한 삶을 사는 여성들로 그려지고 있다.⁵⁸⁾

상기 소설들이 일제강점기 기생을 이해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의도는 없다. 실제로 상당수의 기생이 일자리를 잃고 예인이 아닌 창기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김유정은 이러한 사실 외에도 공적 공간에서 활동한 전문 예인으로서의 기생의 존재를 그의 소설에 담아내었다. 더불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김유정을 제외한 모든 작가가 기생을 사리사욕이나 방탕함의 표상으로 그려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 김동인의 〈배따라기〉(1921)를 들 수 있다. 김유정 단편들에 비해 조금 이른 시기에 발표되었으나 기생의 예술적 전문성을 묘사하

57) 위의 논문, 246~247쪽.

58) 위의 논문, 248쪽.

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특히 “기생들의 노래와 함께 날아오는 조선 雅樂은 느리게, 길게, 유창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또 애처롭게” 대동강 봄날에 들린다는 표현이나 “웬만한 광대나 기생은 발꿈치에도 미치지 못하리만큼” 주인공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표현, “아래 물에서 장고 소리와 함께 기생의 노래”가 들린다는 표현은 기생들이 참여한 공연의 시청각적 분위기를 잘 살려내고 있다.⁵⁹⁾ 〈배따라기〉는 기생에 버금가는 노래 실력을 지닌 한 어촌 마을의 중년 남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로 기생이 예술적 기예를 뽐내는 전문 음악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배따라기〉와 같은 예외는 있으나 많은 지식인층 남성 작가들이 기생을 경제적 유흥이나 성적 방탕함의 여성상으로 표상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서 좀 더 다채로운 양상으로 변모하는 일제강점기 기생의 삶을 담은 김유정 소설은 문학을 통한 기생의 삶 이해하기에 꼭 필요한 텍스트로 여겨진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기생의 모습을 유형화하여 일제 기생문화 이해하기 텍스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본문에서 주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김유정 소설은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기생, 경제력을 갖춘 여성으로서의 기생, 전통문화를 지키는 예능인으로서의 기생, 남녀 간 감정 교류 대상으로서의 기생 등 다양한 면모의 기생의 삶을 표상하고 있다. 성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왜곡된 방향으로 각인되었던 기생이 당시 급격히 변화하는 문화 경제·문화적 흐름에 적응해나간 신여성으로서의 면모를 표상하는 여성층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한다.

둘째, 김유정 소설 속 기생은 적극성과 강한 생활력을 지닌 점에서 김유

59) 이인직 외, 앞의 책, 243~275쪽.

정 소설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른 하층민 여성들과의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체제를 벗어나 도심 환경에서 경제 활동을 펼친 여성 직업군으로 한민족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인물이자 감정 교류의 인격체로 서술된 점이 다르다. 이러한 토론을 끌어낼 수 있는 김유정 소설은 기생 조직이 다른 여성군과 구별되는 특이성과 함께 당시 여성 삶의 보편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동시대 지식인층 남성 작가들은 대부분 화류계 여성으로서의 녹록지 않은 삶을 사는 기생의 모습에 집중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유정 소설은 여류 명창으로 이름을 날린 박녹주와의 관계와 감정을 반영하여 좀 더 다층화된 양상의 일제강점기 기생 활동사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이성이 기생사 이해 교육 텍스트로서의 김유정 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융복합 교육의 가능성으로서 문학 텍스트를 활용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물론 문학 텍스트를 역사, 문화 텍스트 이해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관하여 신중히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학이 문학인 이유의 독자적 자율성과 존재 이유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문학의 문학성은 문화 이해의 일반 수준에서 모두 이해 가능한가. 이해 불가능한 차원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함께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학을 활용한 융복합 교육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교육 환경에 적용했을 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을지에 관하여 증명하지 못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모든 문학을 다룬 것이 아니기에 배따라기 외에도 김유정 문학과 함께 기생 활동사 이해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학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각 작품만의 특징을 가려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문학을 통한 역사 이해하기에 실례를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를 추가 자료 점검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한 필자의 연구과제로 남기며 본 연구를 마친다.

참고문헌

- 강소영, 「기생의 은유화 방식을 통해 본 기생의 현실과 그들의 욕망」, 『한국고전연구』 20,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 강혜원, 「현대소설을 통한 문학-역사 교과의 융복합 교육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권도희, 「19세기 여성음악계의 구도」, 『동양음악연구』 24,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2.
- _____, 『한국 근대 음악 사회사』, 민속원, 2004.
- 권은, 「식민지 도시 경성과 김유정의 언어감각」, 『인문과학연구』 38,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8.
- 김미영, 「병상(病床)의 문학, 김유정소설에 형상화된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인문논총』 71(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 김유정, 전신재 엮음, 『원본 김유정 전집(개정판)』, 강, 2012.
- 김윤정, 「김유정 소설의 정동 연구-연애, 결혼 모티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7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 김은정, 「일제강점기 여성 이미지의 시각화-기생과 여급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39, 세계문학비교학회, 2012.
- 김종호, 「김유정의 고백소설 연구」, 『인문학연구』 1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0.
- 노지승, 「맹목과 위장,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자기(self)의 텍스트화 양상-〈두꺼비〉와 〈생의 반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 노진서, 「소설과 영화를 활용한 역사교육 사례 연구」, 『역사와 실학』 66, 역사실학회, 2018.
- 박상준, 「일반논문: 반전과 통찰-김유정 도시 배경 소설의 비의」, 『현대문학의 연구』 53,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 박혜경, 「김유정소설 속 여성인물이 구현한 성의 양상」, 『아시아문화연구』 32,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3.
- 서지영, 「식민지 시대 기생연구 II: 기생조합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문학여성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 _____,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 III: 기생 잡지 〈장한〉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_____, 「표상, 젠더, 식민주의: 제국 남성이 본 조선 기생」, 『아시아여성연구』 48(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9.
- 송주현,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한민족어문학』 77, 한민족어문학회, 2017.
- 신현규, 『꽃을 잡고』, 경덕출판사, 2005.
- _____, 『기생 이야기』, 살림, 2007.
- _____, 『기생, 조선을 사로잡다』, 어문학사, 2010.
- 양호환 편, 『한국 역사교육의 연구동향』, 책과함께, 2011.
- 연동원, 「독서를 활용한 역사교육 연구-신윤복에 관한 소설의 역사서술 특성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4, 한민족문화학회, 2010.
- 오미화, 「김유정 소설연구: 여성인물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유인순, 「김유정 문학의 부식깃-술·여자·노래를 중심으로」, 『강원문화연구』 22,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3.
- _____, 「김유정과 아리랑」, 『비교한국학』 20(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2.
- 이경, 「유흥과 오염의 서사-김유정의 「정조」론-」, 『현대소설연구』 6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 이미림, 「김유정 문학의 로컬리티 연구」, 『배달말』 64, 배달말학회, 2019.
- 이영숙, 「김유정 소설 연구: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인직 외, 『1900~1930 한국 명작소설 1』, 애플북스, 2017.
- 이태준 외, 『1931~1940 한국 명작소설 2』, 애플북스, 2017.

- 정혜영, 「2007년 근대의 성립과 기생의 몰락: 근대문학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 주경철, 『문학으로 역사 읽기, 역사로 문학 읽기』, 사계절, 2009.
- 최성윤, 「김유정 소설의 여성 인물과 정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 최희영, 「1934년 三南 水災民을 위한 기생들의 구제 활동」, 『대동문화연구』 119, 대동문화연구원, 2022.
- 표정옥, 「근대적 미의식의 양가적 충돌과 타자적 여성성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 연구-너새니얼 호손의 <반점(The Birthmark)>과 김유정의 <안해>를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30(1), 국제비교한국학회, 2022.
- 한상무,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강원도 여성상」, 『강원문화연구』 24,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2005.
- 홍숙희, 「김유정 소설의 양가성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홍혜원, 「폭력의 구조와 소설적 진실-김유정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4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접 수 일 : 2023년 06월 15일

심사완료 : 2023년 09월 12일

게재결정 : 2023년 09월 12일

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Using Kim Yoo-jung Novels as Educational Texts for Understanding *Gisaeng* in Colonial Korea

Choi, Heeyoung(Northern Illinois University)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escription of *gisaeng* in Kim Yoo-jung (金裕貞, 1908~1937) novels to identify the value and possibility of using his literary works as educational texts for understanding *gisaeng* in colonial Korea(1910~1945). In the 1930s, when most of Kim Yoo-jung's novels were published, some *gisaeng* had lots of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public events as performing artists, accumulated wealth, and even went on strike to safeguard the interests and rights of themselves. I analyzed Kim Yoo-jung novels set in the 1930s urban areas to find whether they include some parts reflecting such *gisaeng*'s diverse activities. On analysis, Kim Yoo-jung portrayed and perceived *gisaeng* as those who attained economic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 skills, and individual human beings. This contrasts with his narratives on other groups of women and other contemporary male authors' overall descriptions of *gisaeng*, most of which were about *gisaeng*'s tough life as prostitutes. The findings imply that, if carefully read, Kim Yoo-jung novels can be used as educational texts revealing dynamic narratives on the colonial-era *gisaeng*.

[Key Words] Kim Yoo-ju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ovel, *gisaeng*, educational texts